

지역 소식통

정읍시, 겨울철 축산재해 신속 대응 체계 구축

정읍시는 겨울철 한파, 대설, 축사 화재 등으로 인한 축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축산재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대책은 기온이 평년보다 낮고 건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재해 예방과 홍보, 피해 발생 시 복구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한파와 대설로 인한 재해 위험성이 높아지고 축사 난방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축사 화재 발생 가능성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사전 예방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방 대책으로는 축사 시설 안전관리, 화재 예방, 사후처리 강화를 통해 농가의 재해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상담의 날 운영

부안군은 지난 8일 계획행사무소에서 계획면 이장협의회 4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의 날을 개최했다.

부안군 마을세무사인 박정희 세무사가 증여세 및 상속세, 농지 양도세 등 농민들이 꼭 알아야 할 각종 세법지식을 설명하며 고민해결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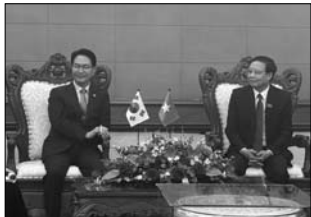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부안군은 현재 박정희 세무사와 김용수 세무사가 마을세무사로 위촉되어 주민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의 날을 운영해 복잡한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성과 평가

심덕섭 고창군수,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베트남 하남성 인민위 각각 면담

심덕섭 고창군수가 캄보디아와 베트남과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사업을 성과 평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심덕섭 군수는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베트남 하남성 인민위원회와 각각 면담을 가졌다.



먼저, 캄보디아의 경우 올해 450명의 근로자가 고창군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줬다. 앞서 고창군은 2022년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근로자들이 입국했다. 고창군은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과 성실

지원 확대 계획을 전달했다. 또한 심덕섭 군수는 베트남 하남성 인민위원회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고창군은 기숙사 신축을 비롯한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근로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농업 생산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고창군은 내년에도 베트남에서 약 500명의 계절근로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숙사와 숙소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농민단체연합회와 시 축산단체연합회가 주최한 '제29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과 농·축산업인 한마음대회가 11일 정읍천변 어린이체육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농업인·축산업인, 화합 결속'

제29회 농업인의 날, 정읍시 농·축산업인의 화합 한마당 열려

정읍시농민단체연합회와 시 축산단체연합회가 주최한 '제29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과 농·축산업인 한마음대회가 11일 정읍천변 어린이체육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농업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고,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농민단체연합, 축산단체연합, 유관기관장, 지역 주민 등 여러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기념식에서는 지역 농업 발전과 성장에 기여한 농업인들에 대한 시상도 진행돼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또한, 시민들이 정읍의 농축산물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식화와 직거래 장터가 운영됐다. 특히 이날은 농업인의

날을 맞아 가래떡 나눔 행사가 열려 큰 호응을 받았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직접 만든 가래떡을 나누며 정겨운 시간을 보내며 행사장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기념식 후에는 농업인과 축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한마음대회가 이어졌다. 이들은 다양한 체육 활동과 공연을 통해 서로 소통하며 농업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다시금 확인했다.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즐기는 이날 행사는 농업과 축산업 발전과 성장에 기여한 농업인들에 대한 시상도 진행돼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이학수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업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나래청소년수련관 기공식

부안군, 주민·청소년들 소통·성장 위한 다양한 시설... 2026년 준공 목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11일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부안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마실커뮤니티하우스와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한 나래청소년수련관 조성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부안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2021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총 150억원을 투입해 마실커뮤니티하우스를 조성한다. 나래청소년수련관 조성은 총 60억원이 투입된다. 군은 이들 시설 조성을 주민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통과 성장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군의 지속 가능한 농촌개발과 지역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

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마실커뮤니티하우스는 문화 및 체육 활동실·프로그램실·동아리실 등이, 나래청소년수련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총 연면적 1622㎡)로 청소년 자치활동실·특성화수련실·실내 집회장 등이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내장산 단풍 절정 시기 도래... '애기단풍' 매력 가득

정읍 내장산의 단풍이 무르익기 시작하며 가을 정취를 더하고 있다. 시는 내장산의 현재 절반 이상 단풍으로 물들어 다가오는 주말인 16~17일에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단초 내장산의 단풍 절정은 10월 말로 예상됐으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절정 시기가 다소 늦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내장산은 가을마다 그윽한 단풍빛이 물드는 산으로,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어우러져 매년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을 불러모은다. 단풍나무는 한 종류만 있는 것으로 알기 쉽지만 각각의 나무는 잎 모양

과 갈래 수에 따라 구분된다. 고로쇠 나무의 잎은 손바닥 모양으로 5~7개의 갈래가 있지만, 신나무는 3개, 당단풍은 9~10개의 갈래를 가지고 있어 그 특징이 뚜렷하다.

내장산에는 당단풍, 좁은단풍, 털참단풍, 고로쇠, 왕고로쇠, 신나무, 복자기 등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다양한 단풍나무 11종이 서식하며, 이 나무들이 만드는 풍경은 내장산의 단풍을 더욱 특별하게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제26회 고창군 농업인의 날 행사개최

농업인단체 고창군협의회(회장 김춘욱)가 11일 고창군 실내체육관에서 '제26회 고창군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조민규 고창군의회 구의원장 및 구의원 등 내외빈과 지역농업인 등 1800여명이 함께 했다.

고창군농업발전회 기여한 유공농업인 김형백(고창군 4·H연합회) 회원 외 14개 읍면 농업인이 군수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유공 농업인 손옥희(공음면)의 2명에게 고창군의회 의장상을, 유공공무원 및 NH농협 등 유관기관에 농단협에서 공로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고창군

(심덕섭 군수), 고창군의회(조민규 의장), 농협대표(NH농협 이미정 지부장), 농업인단체협의회(김춘욱 회장)가 뜻을 모아 작성한 결의문 낭독을 통해 지속가능한 고창농업발전을 위한 결의도 다졌다.

또 내빈과 농업인단체 협의회 11개 단체 대표들은 고창 농업의 활력넘치는 빛이 되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운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또한 농업인단체와 함께 추진했던 2024년 농촌지도사업 성과보고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김춘욱 회장은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진행될거 같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